

# 광주시, 6000억 투입 'AI중심 도시'로 키운다

## 지역 이모저모

**'모두의 AI, 광주' 비전 선포식**  
디지털 기반 'AI공원놀이터' 조성  
행정·상담·민원 등 24시간 운영  
인공지능 중심 맞춤형 헬스케어 도입



지난 11일 오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인공지능집적단지에서 '모두의 AI 광주 비전 선포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바람개비를 들어보이며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광주시에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을 바탕으로 AI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비전을 공개했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지난 11일 광주의 인공지능 중심도시 도약 비전을 제시하는 '모두의 AI, 광주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6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을 바탕으로 도시를 인공지능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인공지능을 체험하고 디지털 기반의 놀이와 휴식을 제공하는 'AI공원 놀이터'가 조성되고 이동시간 단축·대중교통 최적화가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도입한다.

행정·상담·민원 등은 인공지능 민원비서가 도입돼 24시간 운영되며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고 토론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민주주의 플랫폼'도 도입한다.

광주시민의 건강을 위한 인공지능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등이 일상 생활에 활용되며 문화·여가·도 추천한다.

인공지능 안전 보안관을 도입해 범죄 예방·재난 대응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도시로 바꾸기 위해 반도체·AI 분야 21개 기업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광주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해 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광주가 인공지능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정부가 추

진하고 있는 '국가AI컴퓨팅센터'로 보고 시민 퍼포먼스를 통해 유치를 요구했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총 2조5000억원 규모이며 광주는 이미 국가AI데이터센터를 갖추고 있어 최적지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2017년부터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AI데이터센터·기업·인재의 3대 생태계를 동시에 갖춰왔다"며 "선포식을 계기로 시민 모두가 인공지능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추진하고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강'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인프라·인재·기업이 집적된 광주를 'AI 중심 도시'로 키우는 것"이라며 "광주는 이번에 확보한 6000억원 예산으로 '모두의 AI'를 실현해 시민의 삶을 바꾸고, 행정을 바꾸고, 산업을 바꿔내겠다. 광주의 AI는 특정 기업이나 소수의 시민이 아닌, 시민 모두의 자산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향해 가는 길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이다"며 "국가AI컴퓨팅센터는 그저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1000개의 기업이 광주에 오는 일이고 1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광주에 생기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광주의 담대한 도전에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경북 '산업AI 솔루션' 국비 21억 확보

**산업부 실증·확산 지원사업 선정**  
'앵커 컨소시엄' 산·학·연 협력체계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과제는 산업AI 표준 서비스 체계 구축, 현장 실증 및 적용, 산업 확산 전략 수립의 3단계 과정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공통난제인 인력난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북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포스텍, 서울대,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과 대학, 그리고 에코프로비엠·피엔티·아이에스에코솔루션·아바코 등 이차전지 핵심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앵커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산·

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앞으로 9개월간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해 ▲표준 AI 무인화·무재해 솔루션 설계 ▲앵커 컨소시엄 실증 및 적용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로드맵 구축 등 AI 기반 통합 솔루션을 도입·실증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산업은 성장 둔화, 수도권 중심 연구개발 편중,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제조업은 저성장·고령화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 기업의 AI 도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과 창출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이차전지뿐 아니라 주력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금리단길 상가 매출 2년새 65% 급증

경주시, 테마거리 조성 등 결실

경주 금리단길이 유동인구와 매출의 동반 증가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경주시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경주중심상권 르네상스사업'이 순항하면서 금리단길이 지역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리단길의 일평균 유동인구는 2022년 1만 5,063명에서 지난해 2만 6,732명으로 77% 늘었다. 같은 기간 상가 매출도 579억 원에서 957억 원으로 65% 증가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가 테마거리 조성, 문화행사, 빈 점포 활용 등 다양한

사업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한때 유동인구 감소와 영업시간 단축으로 적막했던 중심상가도 '테마거리사업'을 통해 활기를 되찾았다.

특히 경주를 상징하는 별 '개양성' 조형물과 떡거리·땃을 표현한 설치물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인종·성·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문화행사도 활력에 힘을 보탤다. 지난해 9월 열린 '황금카니발'은 사흘간 15만 명을 모으며 젊음이 넘치는 거리를 연출했고, 올해 5월 매주 금·토요일 열린 '불금예찬 야시장'도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다. 신라문화제와 봉황대 뮤직스퀘어의 연계도 체류시간과 소비 확대 효과를 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 부산시, 'OK 웃맨 배구단' 21일 출정식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

부산시는 오는 21일 OK저축은행 웃맨 프로 배구단의 '2025~26시즌 출정식'을 연다. 이번 출정식은 지난 7월 시와 연고지 협약을 체결한 이후 OK 웃맨 배구단이 부산 시민에게 인사하는 첫 공식 자리로, 박형준 부산시장과 최윤 구단주를 비롯해 선수단, 배구팬, 시민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출정식은 총 3부로 나뉘어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사전 참가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1부에서는 새 시즌을 앞둔 OK 웃맨 배구단 사전 이벤트매치를 열어 팬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상대 팀은 추후 공개된다. 이어 2부는 공식 출정식으로 박형준 시장의 축사와 최윤 구단주의 답사, 새 유니폼 공개, 선수단 각오 발표 등이 진행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울진군, 오션리조트 민자 공모 최종선정

울진군(손병복 군수)이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군은 최근 '오션리조트 및 골프장 개발사업' 민간제안공모 심사를 마무리하고 우수제안자를 최종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개발계획, 재무계획, 호텔 운영계획, 공공기여 계획 등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검토한 뒤, 해당 컨소시엄을 우수제안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향후 민간사업자 선정공모에 참여할 경우 평가점수의 3% 가산 혜택을 받게 된다.

울진군은 오는 9월 중 민간사업자 선정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대상지는 근남면 산포리 18만㎡와 매화

면 오산리 134만㎡ 등 두 지역으로, 총면적은 약 152만㎡에 이른다.

해당 부지에는 관광진흥법 상 기준에 따라 최소 3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골프장을 민자로 개발하게 된다. 필수시설 외에 상업시설, 체험시설 등 추가 시설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기획과 배치가 가능하다.

군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울진을 관광객이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단기 체류 위주였던 기존 관광구조에서 벗어나, 머무르는 관광지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익산시

#### 18일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전북 익산시는 가을밤 특별한 오싹함을 선사할 '제4회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을 연다. 이번 축제는 첨단 홀로그램 기술과 호러 콘텐츠를 결합한 이색 행사다. 18~21일과 26~28일 두차례로 나눠 총 7일간 익산교도소세트장에서 열린다.

주제는 '미스터리 연구소, 끝나지 않은 실험'이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다 중단된 비밀 실험이 어둠 속 교도소 세트장에서 되살아난다. 관람객은 몰입형 공포 체험을 통해 실험의 결말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익산(전북)=양수영 기자



포항시는 지난 11일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 포항시

####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실시

포항시는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 발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과 '안전한 일터, 안전한 포항만들기'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시 안전보건지킴이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산업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올해로 운영 3년째를 맞았다. 시 발주 사업장에는 8명이 2인 1조로 상시 점검을 나서고 있으며, 소규모 민간사업장에도 4명의 지킴이가 직접 찾아가 안전 컨설팅과 예방 활동을 펼치며 단순한 규제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 장성군

#### 손자녀 돌봄어르신 수당 지원

장성군이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어르신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어르신으로 친조부, 외조부 모두 해당된다.

인터넷을 이용해 필수 온라인 교육 200분을 이수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간을 가지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돌봄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된다. /장성(전남)=양수영 기자

### 담양군

#### 26~28일 샤인머스켓 축제

담양군이 푸른 포도 샤인머스켓 축제를 개최한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증암천 생태공원 일원에서 '푸른빛 포도로 여는 고서의 전설'을 슬로건으로 제13회 고서포도 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고서 포도의 우수성과 맛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양(전남)=양수영 기자